농어촌 의료취약지 공중보건의 편법 배치

요양병원 환자 부당 진료 '물의'

나주 H병원 … 감독기관 유착 의혹도

나주 H병원이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이라는 명분으로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은 뒤 같은 법인에 소속된 요양병원 환자들을 편법으로 진료케 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H병원 측은 감독기관의 단속을 피해 무려 5년 이상 공중보건의들을 편법 운용한 것으로 확인돼 전남도나 나주시 등 감독 기관과의 유착 의혹도 일고 있다.

27일 전남도와 나주시 등에 따르면 H병원은 농어촌 등 '무의촌(無醫村)' 해소 차원에서 도입된 공중보건의를 지난 2005년부터 배치받아 운용 중이다.

하지만 H병원은 공중보건의 2명을 당초 배치받은 'H병원'이 아닌, 같은 법인 산하의 'H요양병원' 환자들을 진료케 한 것으로 드러나 편법 운영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현행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는 응급의료 기관이나 공공병원, 의료취약지 병원 등이 아닌 일반 '요양병원'에는 공중보건의를 배치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더욱이 H병원 측은 최근 본보의 취재가 시작되자 'H병원'에 보건의들의 진료실을 급조하는 등 은폐 시도를 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본보 확인 결과 이 병원은 지난 5년간 공중보건의들의 진료실을 '요양병원' 내에 차려놓고 환자들을 진료케 해왔다.

그러나 병원 측은 전남도와 나주시에 대한 취재 사실을 접한 직후인 26일 오후부터 당초 의사들이 배치된 '병원' 내에 진료실을 만드는 공사를 벌여 감독 기관과의 유착 의혹이 일고 있다. 실제 이 병원에 배치된 의사들은 지난 26일 오전까지도 '요양병원'에 마련된 진료실에서 버젓이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었다.

또 H병원 측이 나주시청의 지도 감독을 피해 5년씩이나 공중보건의들을 편법으로 운용했다는 점에서 감독 기관이 병원의 불법 사실을 묵인해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의료업계 관계자들은 이 병원이 공중보건의를 편법 운용한 것은 의사들의 급여를 아끼기 위한 방편으로 보고 있다. 통상적으로 의사 1명을 고용할 경우 매달 600만~1000만원 가량의 봉급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H병원 관계자는 "관련 법규를 잘 모르는 탓에 같은 재단의 병원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봤다"며 "병원에 진료실을 다시 만든 것이 '보건소에 민원이 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시정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공중보건의들을 당초 배치받은 병원이 아닌, 요양병원에 배치한 것은 위법"이라며 "확인 절차를 통해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공중보건의 배치를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중보건의 제도는 전국의 의료취약지역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배치해 '무의촌'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1981년부터 시행됐다. 현재 전남지역에는 보건소와 의료기관 321곳에 785명의 공중보건의가 활동하고 있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법원 판결문 스마트폰으로 본다

건설사 모바일 모델하우스 개장도

스마트폰의 진화가 거침이 없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부동산 정보제공에 '모바일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는가 하면, 법원의 판결문도 스마트폰을 통해 볼 수 있게 됐고 모바일 모델하우스를 개장한 건설사가 생겨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u-토지정보 모바일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시에서 운영하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자료를 모바일 단말기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해당 모바일 사이트에 접속해 찾고자 하는 지번·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필지의 지목을 비롯한 면적·이용 계획·도면·개별공시지가·주택가격 등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부동산 정보 포털시스템이 오는 11월께 완료되면 부동산 실거래가·개발정보·부동산중개업소 현황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며 다른 지자체에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도서관은 대법원과 전국 법원의 중요한 판례나 판결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열람하게 하는 모바일홈페이지(library.scourt.go.kr/mobile)를 개설해 지난주부터 서비스에 나섰다.

이에 따라 기존 컴퓨터로 법원 도서관 웹사이트에 접속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던 자료 검색이나 주요 판례·판결 전문·발간·학술정보 열람을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됐다. 모바일 홈페이지는 웹브라우저 표준에 맞게 구축돼 아이폰·안드로이드폰·윈도모바일폰 등 다양한 운영체제(OS)의 스마트폰으로 접속할 수 있다.

건설사도 스마트폰 바람에 가세하고 있다. W건설은 이달 초 모델하우스를 개장하면서 아이폰용 모델하우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다. 신축 단지의 현장정보·평면도·마감재 등 각종 분양정보를 영상으로 보여준다. 로드뷰 서비스를 통해 모델하우스 내부 체험도 가능하다.

/연합뉴스

최고 학교급식 가리자

제1회 학교 급식 우수 식단 조리경연대회가 27일 광주 장덕초등학교에서 열린 가운데 심사위원들이 조리과정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날 대회에는 광주지역 19개 급식팀이 참여했으며 일동초교가 대상을, 대성여고가 금상을 수상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악덕' 해운대리점 대표

예선업체에 줄 1억6000만원 떼 먹어

여수해양경찰은 27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예선업체에 전달해야 할 돈을 주지 않고 가로챈 모 해운대리점 대표 이모(46)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7년 9월20일 사천의 한 해운선사로부터 예선 사용료 470만원을 받은 뒤 예선업체에 주지 않고 가로채는 등 지난해 1월까지 예선업체 5곳을 대상으로 51차례에 걸쳐 모두 1억6000여만원의 예선 사용료를 중간에서 가로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운대리점은 해운선사로부터 예인선 사용 요청을 받은 뒤 예선업체 중 한곳을 선정해 예인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다.

해경조사 결과 이씨는 해운대리점이 예선업체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율 배선제'의 특성과 유리한 지위를 이용해 돈을 주지 않고 가로챘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여수항과 광양항은 모든 예선업체가 돌아가면서 일을 하는 '공동 배선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씨로부터 예선 사용료를 받지 못한 해운대리점 대표들은 자신의 대리점이 다음 거래에서 배제될 것을 우려해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독거노인 흉기 위협 돈 뺏은 50대 구속

목포경찰은 27일 혼자 사는 노인들을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아 달아난 최모(56·목포시 상동)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6월 20일 새벽 1시께 목포시 대양동 김모(여·78)씨의 집에 담을 넘어 들어가 김씨를 흉기로 위협해 다치게 하는 등 6월 초순부터 모두 세 차례에 걸쳐 현금 54만원을 강제로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사전답사를 통해 노인 혼자 사는 집인 것을 확인한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우전 해수욕장서 80대 익사

27일 낮 12시 45분께 신안군 증도면 우전 해수욕장 수영금지구역에서 물놀이하던 정모(82·광주시 북구)씨가 물에 빠져 숨졌다.

정씨는 인근 상인에 의해 발견된 후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목포해경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 경기교육감 무죄

수원지법 판결

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27일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불구속기소된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 교육감은 직무를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국선언의 법적 성격과 징계사유 해당 여부에 관해 사회적 논란과 의견이 분분했기에 피고인이 신속한 징계보다는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기다리자는 신중한 결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교원징계령의 상당한 이유 또는 직무유기죄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교육기관의 장은 검찰의 범죄처분결과통보서를 받더라도 충분한 조사를 거쳐 징계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재량권이 있다"며 "이는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과 생존권을 감안한 것으로 경기교육청과 인천교육청 사실조회결과 폭행과 도주차량 등 범죄처분에 대해 상당수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나주 경찰 간부가 동승자 음주 단속 방해

전남청 감찰 조사

전남지역 한 경찰 간부가 음주단속 중인 동료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을 눈감아 줄 것을 청탁하고, 이 과정에서 행패까지 부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27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동승자의 음주운전을 봐달라"며 음주단속을 방해한 나주경찰서 소속 김모(45) 경위를 감찰조사 중이다.

김 경위는 지난 22일 밤 10시15분께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에서 지인이 운전하는 BMW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광주서부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담당 경찰관에게 단속을 무마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 경위는 또 담당 경찰관이 자신의 청탁을 듣지않고 음주단속을 하려 하자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경위가 탄 차를 운전한 지인은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0.120% 상태로 드러나 입건됐다.

경찰은 김 경위가 음주단속을 무마해줄 것을 청탁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징계할 방침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동포 보복 폭행 베트남인 5명 영장

싸움 도중 다친 동료의 치료비를 주지 않는데 앙심을 품고 같은 국적의 노동자들을 무차별 폭행한 베트남 출신 노동자 5명이 경찰에 불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 외사계는 27일 같은 나라 출신의 동포를 집단폭행한 T(25)씨 등 베트남 노동자 5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T씨 등은 지난 26일 새벽 0시30분께 영암군 대불산단 내 모 회사 기숙사에 흉기와 쇠파이프 등을 갖고 들어가 같은 국적의 K(25)씨 등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 등 피해자들은 등과 팔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달 초 대불산단 내에서 K씨 등과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발목에 부상을 입은 A(25)씨의 치료비를 주지 않는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T씨 등은 지난 2007년과 2008년 각각 한국으로 온 뒤 대불산단 내 D사와 O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인근 S사에서 일하고 있는 K씨 등과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현금인출기 오래 쓴다" 주먹질

쌍나팔

○…현금 인출기를 오래 사용한다는 이유로 시비 끝에 주먹을 휘두른 30대가 경찰서행.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강모(35)씨는 지난 26일 오후 8시35분께 광주시 동구 계림동 한 은행 현금인출기 앞에서 김모(52)씨의 얼굴을 때렸다는 것.

○…강씨는 이날 현금인출기를 사용하기 위해 김씨의 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송금을 하던 김씨가 꾸물거린다며 시비를 걸다가 폭행.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